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단계 공사를 성과적으로 마감하고있는 들끓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볼라보게 변모된 읍진경을 바라보시며 2단계 공사진행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 읍이교양구획, 군급기관구획, 살림집구획, 지방공업구획, 상업봉사구획, 체육문화구획, 교육보건구획, 관광구획으로 명백히 구분되고 모든 구획이 이 지대의 자연지리적특성과 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건설이라는 거창한 창조대전을 통하여 지방건설의 교과서적인 경험과 교훈을 쌓았으

며 우리 당의 지방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 하나의 혁명적도약대가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인민병원과 치과전문병원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들쪽을 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구리 2단계 공사가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되어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 읍지구는 불수록 장관이라고, 말그대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못내 감개무량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구상하던대로 우리 민족제일주의건축리념과 주체적건축미학사상,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지방산간도시의 전형이 창조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 장군님 고향군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들이 좋아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복원의 전변을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이 정말 아쉽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뒤늦게나마 조금이라도 전사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한것 같은 생각에 오늘은 발걸음이 다소 가벼워질것 같다고 깊은 회한에 잠겨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있다는 남다른 자부심에 가슴이 뜨거워온다고,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총정은 하늘도 감복시킬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할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새기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의 가장 중대한 시기에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우리 당의 권위를 보위하고 우리 국가의 자존을 지켜 보란듯이 세상에 돌

도 없는 산간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모기를 창조한 전체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압박의 쇄살로 숨조이기하려들면 들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들고 적들이 배가 아파나게, 풀이 아파나게 보란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래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오직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이 시련과 곤란을 디디고 기적과 위훈으로 더 높이 비약한 2019년의 총화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구리 2단계 공사의 마무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주변지구, 농장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3단계 공사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두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고 용감하게 돌진하여 당창건 75돐까지 삼지연군건설을 기어이 완공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백두산 정에 오르시였다

반만년의 숙원이 쌓인 백두산에 시원을 두고 장장 70성상 중첩되는 격난들을 짓부시며 역세계 계승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조선혁명사는 력사의 매 시기마다에 승리의 상징으로 빛나는 위대한 수령의 전설적인 령도사로 수놓아져있으며 그 무한한 향도의 힘으로 하여 백전백패의 기개를 떨치며 대전성기를 맞이하고있었다.

세계가 팔복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펼쳐며 폭풍쳐 용진하는 조국의 도도한 기상을 안고 장엄히 솟아있는 백두성산에 절세의 위인이 펼쳐신 전설같은 화폭과 특기할 자욱이 뜻깊게 새겨져 천지를 진감시키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

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전설같은 기적들과 거창한 영웅신화로 이어지는 우리 혁명의 걸음걸음이 총화되고 새로운 응락들이 결심되는 조선혁명의 책원지이며 우리 조국의 무진장한 힘의 근원지인 백두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에 걸으신 군마행군길은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혈전광야에 흰갈기를 날리며 비호같이 달려던 빨찌산 김대장의 호기찬 군마발굽들이 력력한 백두대지를 주름잡아 누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위인상에 울울창창한 최고밀림도 감격에 설레였고 백두령봉은 자기의 위대한 주인을 받기며 은빛눈꽃을 뿌리고있었다.

백두산은 천리준마의 발굽소리 우렁차

게 눈갈기를 헤치며 찾아오신 천출위인을 맞이한 환희에 넘쳐 신비경의 장관을 펼쳐졌으며 청사에 길이 전할 그 화폭을 간직하려는듯 천지도 장막을 걷어내고 푸른 빛을 내뿜었다.

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상상 못할 기적들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로동당시대에 새로운 《백두산룡마》 신화가 태어나는 뜻깊은 시각을 맞이한 격정으로 하여 성산의 하늘도 백두령장의 어깨우에 삼가 백포자락을 엮어드리듯 하얀 눈발을 날려산장을 덮으면서 신묘한 정기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마를 타시고 령봉에 거연히 서시어 백두의 산악같은 신념과 의지로 최강국의 대업을 위해 달음쳐오신 간고한 전투적행로들과 격변의 나날들을 뜨겁게 새겨보시면서 또다시 용기충천하여 넘어야 할 혁명의 준령들을 안아보시는듯 첩첩히 늘어선 산발들을 굽

어보시였다.

영웅조선의 자주정신과 사회주의 붉은 리념을 더해주고 뜨거운 혁명열애를 용암처럼 폭발시켜주는 장엄한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계시는 그이의 근엄하신 안광에는 불어오는 온갖 역풍을 백두의 폭풍으로 쳐갈기며 기운차게 자력부강해나가는 사회주의강국의 진군활로를 환하게 내다보시는 천출명장의 숭엄한 빛발이 넘쳐 흐르고있었다.

어느때나 백전필승의 투지를 안겨주고 거인적준엄과 배심을 충만시켜주는 승리의 성산 백두산에는 조국과 인민의 자존과 운명을 지켜 그 어떤 위협과 유혹에도 추호의 양보와 타협을 모르고 우리 조국을 최강의 힘을 보유한 강국의 전열로 완강하게 이끄시며 력사의 흐름을 정의와 진리의 한길로 주도해가시는 김정은원수님의 전설적인 기상이 빛발치고있다.

동행한 일꾼들모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령봉에서 보내신 위대한 사색의 순간들을 목격하며 또다시 세상이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것이라는 확신을 받아 안으며 뿔어오르는 감격과 환희를 누르지 못하였다.

백전백승하는 가장 정확한 령도로 거대한 사변의 시대, 영웅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과 막강한 지위를 세계중심에 우뚝 올려세우신 절세의 영웅이시며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새기신 심원한 뜻과 거룩한 자욱은 이 조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강의 힘을 가진 사회주의강대국으로 더 높이 떨쳐가실 원대한 응지로 빛날것이며 우리 혁명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는 력사적인 장거로 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감회도 새로운 지난해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함경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정력적으로 현지지도하시던 나날도내인민들에게 절실한 그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마련하여주고싶으시어 군사기지를 철수시키고 대규모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을 건설할 원대한 구상을 펼쳐시고 한달사이에 두차례나 현지를 답사하시면서 몸소 부지를 잡아주시고 건설을 맡아할 인민군부대들과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편성하여 파견하여주시였으며 매주, 매월 실례를 보고받으시며 건설사업

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어 먼지만 훑날리던 이곳에 수습정보의 현대적인 남새온실과 년간 2, 000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양묘장이 일떠서고 온실농장과 양묘장의 농업인들이 살게 될 수백세대의 소중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준비하게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경온실과 토양온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의 경영관리를 짜고들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집약화된 남새생산기지로서의 생활력이 생산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

시면서 선진적인 남새재배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확고를 높이고 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함경북도인민들이 꼭 농장터를 단단히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남새작물의 가치를를 다양화하고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여 도입하며 남새종자를 개량하고 육종하는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실운영준비를 잘하였다가 명년도부터 일시에 남새 생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지도기관들에서 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영농물자를 보장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종업원들의 주력지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마을을 도시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건설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은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 전형으로 내세울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전하는 시대는 리상과 목표를 현실적이면서도 높이 정하고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며 전진할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에서도 시대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새로운 전형, 본모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량대적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평남새온실농장은 온실건설에서

하나의 혁명, 본보기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각 도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하나씩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전국적범위에서 온실농장을 현대적으로 실리에 맞게 건설하는 사업을 계속 다그쳐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인민군인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을 로동당시대의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동방의 해솔는 강국

그것은 예단이 아니었다. 온 세계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었다. 누구의 의지에 의해 형성된 축심이 뒤흔들리고 세계가 변하고있는가.

지구의 나이는 46억년. 력사의 시선으로 투시해볼 때 너무도 담차고 강대한것의 출현이어서 판방의 폭과 의욕은 전례를 넘어서고있다.

## 자력으로 강국의 기둥을 세우다

세계의 흐름은 순란치 않다. 굴종과 의존, 지배와 간섭이라는 악순환은 풀수록 엉켜드는 실꾸리마냥 무시로 위기와 혼란을 낳지만 그것을 피할수 없는 숙명처럼 감수해야 하는것이 현 세계의 실상이다. 이런 참담함을 짓누르며 지구의 한복판에 떠오른 《자주와 정의의 등대》에 대한 이야기기는 세계의 화제로 무수히 떠오르고있다.

《단신으로 령강들의 압력과 공갈을 쳐갈기며 폭발적으로 추구하는 조선의 모습은 굴욕과 타협으로 슬죽은듯 누워있는 세계를 정신이 번쩍 들게 뒤흔들어놓고있다.》...

세계의 지성과 랑심은 차계계 얼어붙던 심장을 마스키 녹여주며 스며드는 온기를 감축하면서 정란의 미소를 보내고 적대세력들은 불안의 심연속에 깊숙이 빠져버렸다.

어찌 보면 공화국은 현세기의 10년대에 지난 세기에 있는 전쟁의 3년간보다 더 엄혹한 시련을 헤치고있다.

가장 위험한 거짓은 위장한 진리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졌으며 결국에 전도된 거짓중의 최대 거짓인 《북위협론》이라는 미명하에 공화국의 인민을 통제로 인질로 삼을수만 있다면 그 무엇보다 가리지 않은 형형색색의 《제재결의》의 부당성에 대해 더이상 논하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무고한 아이들과 녀성들, 로인들을 포함한 전체 인민, 심지어 공화국과 조공이라도 거대한 나라들에 가해진 제재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합치면 몇차례의 전쟁과 맞먹는다는 데 대하여 다시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에 지구의 중앙이 출렁거던 같은 이 땅을 전세계가 속을 조이며 바라보았다. 누구는 불안과 우려속에, 누구는 동정속에 혹은 실낱같은 기대속에... 리성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 나라는 분명 공포의 도가니속에 잠겨야 할것이다. 현대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있는가. 자신들의 운명을 놓고 순간이라도 걱정해본적 있는가. 자식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룬 어머니가 있는가. 마치 그 어떤 마술적인 힘이 의도적으로 꾸며놓은것만 같다.

《기존 (북구성) 계열탄도단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형의 잠수함탄도단》, 《세계적으로

하다면 백두산을 기둥처럼 세우고 삼천리강토를 대양에 펼친 해솔는 아침의 나라-조선, 그대는 세계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것인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무기개발속도》...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이 무슨 잠재력이 있어 련속 주체병기개발에 성공하는지 우멍눈을 깜빡이며 제재목록을 들여다보지만 결국은 타고앉은 나무까지 제손으로 툭질하는 격이 되고말았다. 허나 주체병기시험의 련발성공이 세계에 주는 충격은 그에만 그치지 않는다.

력사에서 진리와 허위는 무엇으로 갈라지는가. 그것은 자기 힘인가, 남의 힘인가 하는것이다. 추후의 동요도 없이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발사대로 하여 즐기차게 터져오른 주체병기들의 위량한 포성! 그와 더불어 자주와 정의의 강국, 최강의 군사강국으로 추구쳐오른 동방의 조선!

광범한 인터넷상에서 울리는 세계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들어보자.

《김정은평도자는 기둥토로는 해석이 안된다. 도저히 예측불가능하다.》, 《세계정상들속에서 김정은위협장을 만나기 위한 열풍이 불고있는것은 국제정치질서가 북중심으로 재편되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때문인가. 세상은 넓고 대국들도 있고 제노라 하는 지도자들도 있다. 주권국가에게 있어서 강령적 자위적방벽은 자기를 지키는 명줄과도 같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것은 오늘의 세계에서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모든것을 각오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보통의 각오와 담력, 지혜, 자신심으로는 도저히 이룰수 없는 일기에 세계가 경이의 시선으로 공화국을 바라보고 있는것이다.

남들이 하지 못한 기적같은 현실을 안아오시고 행성을 뒤흔드는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창조하시려는 불세출의 영웅, 천하제일명장의 무비의 담력과 뛰어난 령도력에 어찌 온 세계가 머리숙이지 않으랴.

현세기 최초의 파격적인 수비상봉과 회담장소마다에서 빛나던 공화국의 랑홍색기구를 보면서 세계는 투철한 자주적대외 무비의 담력과 배짱, 정치대가로서의 슬기와 지략을 지닌 위인을 모셔야 자주로 존엄높은 강국의 위용을 펼칠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치게 새겨안고있다.

세상사람들은 지금 또 무엇을 보고있는가.

자력자강의 눈부신 선경들이!

것이 바로 문명부흥의 새 질경을 펼친 공화국의 진짜모습이고 이것이 행성을 쫓게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진동이다. 전략적지위의 튼튼한 초석만이 아닌 통성변영의 눈부신 열매들도 자강의 힘으로 거뒀들이는 기적의 나라!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아직 그 한 돌기도 채우지 못한 세월이었다.

세상을 둘러보면 길은 번쩍거리며 모래우의 무각과 같은 나라가 그 얼마인가. 외세의 자본이나 기술에 명줄을 건타는 한민국의 제재를 당해도 국가존립의 기둥이 휘청거리지는것이 현 세계의 실상이다. 남의것으로 가득찬 부흥은 이렇듯 넋이 없는 생명체와 같다. 일시적인 변영은 있어도 무한대한 비약의 도약대로는 되지 못한다.

서방세계의 외곡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 사랑이 넘쳐나는 일심단결의 강국

진자 위대한 강국이 자력으로 세운 자강의 결정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완전한 자강력은 그것이 전체 인민의 한모습으로 승화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허나 이것은 세상의 수많은 정치가들이 갈망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소원이다. 그 꿈을 실현하고자 사람을 순종하게 하는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포와 리익이라고 하면서 권력과 황금에 매달린 위정자들도 있었지만 그 것을 따르는 힘에는 한계가 있었다. 권력이나 황금은 길을 따르고 인간은 속을 따른다. 덕은 칼을 이긴다고 했다. 같은 쓸수록 무더우지만 덕은 배울수록 아름답다. 자력자강의 덕을 표방하지 않은 지도자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지도자를 변함없이 지지하며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해온 인민은 없었다. 인민의 마음은 가슴과 질서, 현상과 본질을 날날이 식별하고 갈라내는 시금석이다.

하다면 국가의 《붕괴》에 앞서 인민의 와해를 목표로 한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어떻게 공화국의 인민이 오직 한 모습, 자기식대로 강국을 건설해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성장하였던가.

누군가는 인민에게 있어서 정의와 랑심과 같은것이라고 하였다. 품고살아도 끊이 없는 무수한 창조물들은 그 융합과 화려한 자태로써만, 급속히 일떠서는 속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은보화이고 무진장한 창조는 저수지라하는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실로써 증명되고있기때문이다.

자력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하기에 그 누구도 인구는 작아도 그 중심을 알수 없는 신비의 나라라,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북반은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경란이 밀물처럼 흘러들고있다. 실로 자력자강이야말로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제재와 압력의 중앙을 결단코 박차고 공화국을 세계우에 떠올린 위대한 동력이었다고 적대세력들도 공화국을 존경하고 배려하게 대하는 법을 증명해준 밑천이었다.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속에 잠근 자력부흥의 메아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진폭으로 누리를 진감한다.

각이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오늘의 령정에서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주적대외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강성변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하기에 온 세상에 파급되는것은 무어때문인가. 자력자강앞에서는 그 어떤 제재라도 무력해진다는 것이, 자력자강이야말로 진짜 금

로 짓밟아버린 령명신화를 두고 경이의 눈길을 금치 못했던 세계가 보다 새로운 영웅신화가 태어나는 거대한 격전장들을 다시금 시선모아 바라보고있다. 그 격류의 진두에서 돌격로를 열어가게 과학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장한가. 기술대국이라 자처하는 불과 몇개 나라의 독점물처럼 되어있던 공정들을 다발련속적으로 개발한 현실도 경이적이었다. 보다 놀라운것은 착상도 기발하고 시도도 세롭고 결과는 남보다 월등한 이 모든 도약이 똑똑한 과학기술문헌 하나도 보기 힘든 속속이 이루어진것이다. 이런 고결한 정신을 한푼도 풀지 않게 보수를 받기 전에는 자기 실력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는 자본주의나라 과학자들의 리기적태산과 어찌 감히 비길수 있었는가.

이 땅에서 금상송하는 과학기술은 이렇듯 다함없는 감사의 분출이다. 술하의 천만아들말들을 역세게 키워 강자의 자존심을 심어주시려는 그 사랑이 하도 고마워 조국망의 맥박이 자력자강의 열풍을 안고 뿔뿔고있다. 전민이 과학기술인재화된 힘이 어떤 기적을 낳는가를 보여주는 인민의 재부들이 실증해주었다. 그리고 후련히 보여주었다. 《제재만능》의 쇠사슬이 주체의 철퇴에 어떻게 무자비하게 산산조각나는가.

이 땅의 천만아들말들은 바로 이렇게 순결한 랑심과 의리를 자기의 령도자에게 바치었다. 사랑만을 받아안은 용석받이가 아니라 자기의 조국을 세계의 중심에 받들어올리는 속깊은 자식들로 성장하였다.

강대한 나라는 바로 이렇게 건설되는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뜻, 정과 의리로 굳게 뭉친 이 거대한 위력기 공화국의 자강력의 무궁한 원천이다.

※ ※

신뢰는 결코 시간의 투적이 아니었다.

력사의 순간이라 할수 있는 짧은 기간에 5천년민족사이래 가장 강대하고 무한대의 힘을 분출하는 공화국의 모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로 흐르는 력사적흐름을 보면서 북과 남의 온 거레는 삼천리강토에 밝아올 통일강국의 용자를 그려보고있다. 민족의 참된 령수가 계시는 곳으로 민심이 쏠리는 것은 어쩔수 없는 추향이거니, 탁월한 령수가 계시어 공화국을 막강한 국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추구쳐오를것이다.

세계지도에서 눈에 선폴 띄이지 않는 자그마한 나라이지만 동방의 새 강국의 출현은 지구에 커다란 충격을 줄것이다.

본사기자 박영진





# 남북민심이 추켜든 정의의 초불



◆ 민족의 반만년력사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승리를 떨친 수많은 싸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의 싸움들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두고 우리 민족은 대첩이라고 일컫는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있는 행주산성전투도 그러한 대첩의 하나이다. 2,300명밖에 안되는 성안의 조선군대와 주변지역 인민들은 결사적으로 싸워 수적으로 10배이상인 3만명의 일본 침략군을 무찌르고 크게 승리하였다. 살수대첩과 구주대첩, 한산대첩 등 우리 민족의 력사에 기록된 많은 대첩들은 승리한 곳의 지명이 자랑스럽게 불어있다. ◆ 얼마전 남조선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자리잡고있는 서울 서초구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대규모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315만명의 각종 중등들이 참가하여 성난 민심을 잘 보여주었다. ◆ 정의가 불의의 이기는 것은 력사가 깨우쳐주는 진리이다. 지난 시기의 대첩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싸움에서 이룩되었다면 수백만명이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서울의 거리들을 밝힌 이번의 《서초대첩》은 사회의 악을 조장하는 적폐세력을 쓸어버리고 새 정치, 새 생활을 기어 올려야 하는 남녘민심의 의지와 각오가 얼마나 강하한가를 보여준것으로서 그 의미는 자못 크다.

## 《서초대첩》

초불투쟁이 또다시 진행되었다. 《서초대첩 최후통첩》이라며 열린 제9차 초불집회에는 서울과 름집한 인천, 경기도, 충청도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지어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고있는 고등

## 적폐세력을 끝까지 청산하려는 결렬한 의지

남조선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더 고조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10월 12일 남조선의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대규모초불투쟁이 또다시 진행되었다. 집회에 참가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를 비롯한 각계층 시민단체들은 연극, 음악공연, 시위행진 등의 사진집회를 진행하고 18시부터 기본집회인 《제9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초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번 초불집회를 《서초대첩 최후통첩》으로 정한 이번 투쟁에는 사진집

회가 열리기 1시간전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22시 집회가 끝날 무렵에는 315만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인천, 경기도, 충청도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 광주지역 등에서도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집회에 참가하여 사법적폐청산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제9차 초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신속처리안건(공직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안) 국회통과》, 《자유한국당 해산》, 《조선일보》 폐간》 등을 요구하며 투쟁기세를 높였다. 집회장에서는

《개혁은 민주의 초불로!》, 《다시는 지지 않는다!》 등의 함성이 련속 울려나왔다. 집회참가자들은 대검찰청사건면에 《정치검찰out》라는 글을 레이자로 새기기, 붓글서명 등의 행사를 벌리면서 《검찰이 개혁에 저항한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더 크게 초불을 들것이다.》, 《적폐세력은 서초동에서의 시위투쟁이 잠정중단이라는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광주, 부산, 제주도 등을 비롯한 각지에서도 검찰개혁 등 적폐세력청산을 요구하는 초불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남조선에서 힘차게 라면지

고있는 초불투쟁은 력대로 파쇼독재의 시녀가 되어 정의와 민주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층의 의로운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해온 검찰적폐세력과 더러운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달라고있는 《자한당》역적패거리들에게 내리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도 이번 초불집회를 두고 적폐세력의 파수꾼인 검찰이 공정한 사회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해야 할 법을 권력의 부속물로 만들고 불순한 정치적야욕실현의 도구로 만들어버린데 대한 응당한 징벌이며

이 기회에 적폐당인 《자한당》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평하고있다. 이번 초불시위참가자들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적폐세력청산이 끝나지 않는 한 앞으로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민심의 분노의 초불은 계속, 더 크게 타면지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하나의 초불은 자그마한 주위의 환영을 받지만 수천수만의 초불은 어둠을 물리치며 광야를 밝힌다. 그 광야속에 빛을 잃어하는 한갖 쥐우리와 같은 적폐세력들이 틀고있을 자리란 없다. 본사기자 안권일

얼마전 일본의 도쿄시내에서 난데없이 《팩토리오트》(PAC-3) 요격미사일이전개훈련이라는것이 벌어졌다. 일본방위상과 도쿄도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항공 《자위대》대원 30여명, 《PAC-3》요격미사일발사대 1대, 레이더와 전원공급장치 등을 탑재한 차량 15대가 동원되어 약 20분동안의 준비단계를 거쳐 가상발사훈련까지 진행하였다. 일본이 주일미군기지밖이나 방위성청사가 아닌 주민지대에서 《PAC-3》요격미사일이전개훈련을 벌려놓은것은 2013년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틀후에는 도쿄중심의 방위성청사에서 《PAC-3》요격미사일발사대 2대를 배치하는 놀음도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외신들은 《도쿄한복판에서 요격미사일이전개훈련이 벌어진다》, 《일본이 북조선의 미사일발사를 공군주의화하라는 다그치기 위한 구실로 삼고있는듯하다.》고 평하였다. 결코 우연한 평가가 아니라 공화국이 진행하는 전쟁

역제력강화조치로 말하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자주적권리의 행사로서 문제시될만 한것이란 꼬물만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

요가 있다고 떠든 다음날 방위성청사에서 《PAC-3》요격미사일발사대 2대가 배치된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수있다. 지금 일본은 앞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환

에서 또다시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억지주장한것은 그들의 재집야망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언론들이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는 아베의 야욕이 도를 넘어서고있다.》, 《일본이 독도에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시

## 요격미사일전개훈련이 보여주는것은

일전개훈련을 진행한것은 자위대의 대응태세를 보여주기 위한데 있다.》, 《일본이 북조선의 미사일발사를 공군주의화하라는 다그치기 위한 구실로 삼고있는듯하다.》고 평하였다. 결코 우연한 평가가 아니라 공화국이 진행하는 전쟁

며 요격미사일전개훈련을 벌려놓은것은 반공화국적대감을 고취하고 공군주의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한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일본수상 아베가 북조선의 《북극성-3》형 탄도미사일발사를 명백한 위협의 일환이며 미국과의 협력에 미사일방위능력을 강화할 필

영한다. 조미대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하면서 재침의 기회만 노리고있다. 일본이 2020년도 방위예산을 《력대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2019년보다 1.2%나 더 늘여 책정한데 이어 2019년 《방위백서》

사한것은 과거의 일제시기에 닮았다.》고 평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공군주의화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책동이 우심해지는 속에 벌어진 이번 요격미사일전개훈련은 세계진보적인류의 응당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강릉전

## 역겨운 기만극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선거 때마다 《박정희향수》를 풍기며 《한강의 기적》을 떠들었지만 인민들의 생활에서 달라진것이란 하나도 없다. 《경제살리기》라는 간혹 유행하며 권력의 자리를 떠안는 리명박역도도 집권 전기간 어리석고 실속없는 경제정책, 부자와 재벌을 중시하고 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특권층우주의 경제정책에 매달렸다. 이로 하여 리명박 《정권》은 출현초기부터 《강부자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리명박보수패당이 재벌들의 이익을 얼마나 극성스럽게 옹호했는가는 보수당국이 대기업체들에 일반적으로 유리한 환율정책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출수 있는 거 모든것을 재벌들에게 주었다.》, 《정부의 지원으로 재벌들이 최대의 이익을 거둘수 있었다.》고 자랑할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있다. 그뿐이 아니라 리명박패당은 남조선경제를 미국경제에 더욱 얽어매고 농민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을 발표시키는 쓸개빠진것도 서슴치 않았다. 불명등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하루하루를 간신히 지탱해가있던 남조선의 중소기업들과 농민들은 미국독점재벌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무리로 파산되고 실업자로 굴러떨어졌다.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시대》를 떠들며 권력의 자리에 오른 박근혜 역시 재벌우주의 반인민적인 경제

정책을 강행하면서 《서민경제》의 목을 조이고 민생을 도란속에 몰아넣었다. 사대매국적기질이 풀수에 배인 박근혜가 다른 나라들을 싸다녀며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놀음을 벌려놓는 바람에 원래 제맛이 없고 남에게 의존되어있는 남조선경제는 견줄수 없는 위기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저들의 죄악에 대한 반성은 꼬물만큼도 없이 현 집권당국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들쳐우는데만 피눈이 되어 돌아가고있다. 《자한당》 패거리들에게는 애당초 남조선경제를 살릴 능력도 없고 민생을 돌볼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었다. 현 당국의 정책추진에 계속 제동을 걸어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그것을 현 당국의 정책실책로 몰아 종당에는 《정권》을 빼앗아갔다는것이 《자한당》의 속사이다. 이자들이 경제난수습을 위한 현 당국의 추가에관한성을 가로막은것을 비롯하여 《국회》를 마비시키고 권력쟁탈에만 미쳐들아가며 남조선정권찬양을 정쟁의 스산한 마당으로 전락시킨 사실이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반역당이 《외연확장》을 떠들며 중도층을 끌어당기려고 어리석은 경제정책놀음을 매달리고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민생대장정》과 마찬가지로 재집권계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불순한 민심기만극일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외세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셔나갈것을 선언

남조선인테레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통일에국력상 추모제》가 13일 지리산에서 진행되었다. 민중당 상임대표,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장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성원들

과 각지에서 모여온 300여명의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몸바쳐 투쟁한 사람들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력사의 거센찬호를 절대로 되돌릴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힘을 합쳐 외세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셔나갈것을 선언하였다. 본사기자

## 부산 지역 단체들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규탄

남조선인테레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산경남연합, 평화통일센터 하나가 8일 부산에 있는 미국령사관앞에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낭독되었다. 회견문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

어서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단행한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결정에 《우려》를 운운하며 원상복구를 강요하고있다고 회견문은 밝혔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서는 일인반구하지 않은채 군사형정폐기결정을 뒤집으려는것은 남조선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된다고 회견문은 까밝혔다. 본사기자

회견문은 미국이 남조선공군전투기의 독도주변 상공비행까지 시비질하고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현 《정권》에 로골적으로 협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하고있는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 힘차게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영국의 유럽동맹탈퇴분제로 복잡한 유럽정세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떨어져나갔다고 심포한 마감시한이 박두해에 따라 유럽동맹과 그 주변의 정세가 더욱 어수선해지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영국수상은 이러저러한 여러 기회들에서 자기 나라의 유럽동맹과의 합가이 없었던 관계없이 10월 31일 무조건 동맹을 탈퇴할것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연기를 요청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합의가 없는 탈퇴가 영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과 국회의 강한반대에 부딪히며 지어는 여당인 보수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위기를 느낀 영국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초 수상이 유럽동맹수뇌자회의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이룩하는데 실패할 경우 동맹탈퇴의 추가적인 연기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왕의 승인을 받았으며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합의없는 탈퇴가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에서 10월 2일 영국정부는 유럽동맹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난문제들중 하나로 되고있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북아일랜드지역사이의 국경통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영국은 새 방안이 광속의 리해판계를 다 고려하였으므로 유럽동맹이 《합리적인 양보》만 한다면 새로운 탈퇴합의는 모양을 갖추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유

럽동맹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영국측이 제출한 새 방안에 의연 문제가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동맹은 새 방안에 제시된 세 판규칙 등에 대해 아직 의문시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수상은 유럽동맹에 자기의 최근 방안이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마지막회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유럽리사회 의장은 영국이 어리석은 비안전을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영국수상은 합의를 원하지 않고있으며 동맹탈퇴의 연장이나 취소도 바라지 않았고, 대체 어찌자라는것인가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아일랜드수상은 본질상 영국정부가 했다는것은 유럽동맹이 이전 수상과 체결한 합의를 거부한것뿐이며 합의내용의 절반을 다시 협상탁에 올려놓고 그것을 저들의 양보라고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도이첼란드수상은 8일 영국수상과의 전화대화에서 북아일랜드는 유럽동맹의 관세동맹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립장을 강조하면서 합의가 도저히 이룩될 가망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도이첼란드수상의 주장이 곧 유럽동맹의 립장이란것은 합의가 사실상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연히 불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한

다고 하면서 이것은 영국수상의 마지막대안이 실패하였다는 신호로 된다고 평하였다. 공방전을 이어가는 속에 9월 중순부터 끌어온 영국과 유럽동맹사이의 협상이 이달 9일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고말았다. 분석가들은 유럽동맹이 영국수상의 방안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 합의없이 동맹으로부터 탈퇴한다는것은 실현불가능한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유럽동맹이 협상압력을 가할수 없다. 하지만 유럽동맹도 협상의 문을 닫아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속을 지체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유럽동맹으로부터의 영국의 탈퇴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번져지고있는 유럽의 정세발전을 추이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김광역

#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을 추동한 전시회

얼마전 과학기술전당에서 전국로보트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가 진행되었다.

《생산공정의 로보트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시회에는 국가과학원, 전자공업

성, 기계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개발한 로보트들, 로보트 개발에 필요한 설계와 기계 요소, 구동장치, 조종프로그램들이 전시되었다.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공업용 6자유도로보트는 용접, 도장, 이적, 포장 등 임의의 작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로보트로서 항공, 기업소들의 생산공정을 자동화

하는데서 의의가 큰 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양기계대학에서 출품한 Delta형병렬로보트실험장치는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곳 연구사의 말에 의하면 Delta형병렬로보트를 리용하여 생산설비를 제작하면 수입설비에 비해 제작가격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장치의 믿음성도 높다고 한다.

현재 이 로보트는 신의주 화장품공장 화장품도장공정의 로보트화실현에 도입되어 생산에서 큰 은을 내고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에서 출품한 원격시각협조로보트 및 3차원자세안정화실험장치도 우수한 것으로 하여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에는 대학생들이 개

발한 축구로보트들과 로보트 경기체제가 출품되어 더욱 이채를 띠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출품한 전방향형축구로보트경기체는 무인운반차, 지능형로보트 등을 개발하는데서 현실적의의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기간 과학기술발표회와 함께 로보트연구개발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활발하게 교환되었으며 로보트주분 및 기술봉사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기술교류도 진행되었다.

전국로보트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는 로보트설계제작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끌어올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첨단기술개발과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 철



## 세계철새의 날 기념행사

세계철새의 날 기념행사가 13일 문덕철새보호구에서 진행되었다.

성영남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관련단위 일꾼들과 더글라스 와트킨스 등 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협력기구 집행국장,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의 철새전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생물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사회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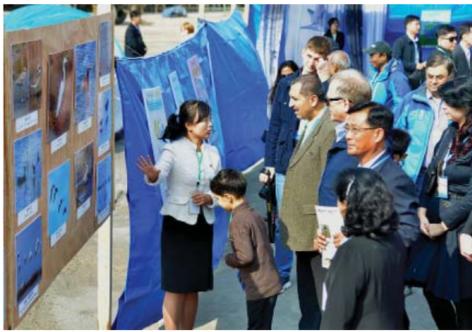
적인 발전을 위해 철새와 그 서식지인 습지의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세계철새의 날에 대한 해설과 문덕철새보호구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문덕철새보호구의 철새와 습지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고 소개전집을 《풍부한 자연보물고조의 습지》를 시청하였다.

그들은 또한 철새보호를 주제로 한 학생소년들의 유희오락경기를 관람하였으며 문덕철새보호구의 주요 철새종인 물개리를 관찰하였다.

본사기자



## 사화

### 릉 참 봉 (1)

글 리원주, 그림 리성일

동녘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러명직전의 철쭉같은 어둠을 가시며 안개가 조용히 흐른다. 무거운 안개에 휘감겨 물에 잠긴 같은 울창한 숲속도, 숲속안의 넓은 공터도, 공기안에 붓가지가 솟은 커다란 봉분도 검은 자태를 뿌옇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삼라만상은 아직도 동면에서 깨어나지 않은듯 혼돈의 잠에 취해있고 이른새벽의 평기는 의연히 살을 에이듯 한데 대기속에서는 벌써 태동하는 봄의 냄새가 가슴뿌트기 느껴진다.

숲속공터안에 크게 자리잡은 무덤앞에 언제부터인지 한 사나이가 부복하고있었다. 어스름속에서 죽은듯이 기척이 없던 그가 이윽고 고개를 들어 희블러 밝아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더니 추위때문인지, 마음속에 꿰어오르는 격정때문인지 허연 수염을 덜덜 떨며 호곡하듯 말한다.

《태황제폐하(고종을 가리킴)! 망국의 설움을 안고 승하하신지 어언 4년, 간악한 왜적의 무리들이 폐하의 통침을 통이러 청하지 못하게 하옵고 태황제폐하를 폐하라 일컬으시 부끄러 하와 통침에 비해서도 세우지 못했으니 나라없는 백성의 비분이 망

국하옵고 통침을 지켜온 신의 죄 또한 만사무석이로소이다.》

그리고 로인은 몸을 웅송그리고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며 어깨를 들먹인다. 과연 왕릉담에 봉분의 규모도 크고 정교하게 다듬은 상석도 향로석도 제자리에 놓여있고 그안의 좌우에 망주석도 위의를 갖추어 세워있지만 웅당 비석이 서있어야 할 비각안의 허전하게 비어있다. 그것도 몇날, 몇달이 아니라 벌써 4년째다.

비석이 없는 비 비각을 바라보는 로인 즉 통참봉 고영근의 눈에는 불이 일고 가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것은 민족의 치욕이었고 나라의 수치였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대표하던 임금이 임자없는 무덤에 버림받았으니 되었으니 이런 통분한 일이 어디 또 있었는가! 적어도 고영근은 이런 이렇게 생각했다. 그의 입에서는 오열이 터져나왔다.

《그리하와 차라리 신이 비석이 되자. 비명이 되자 마음먹고 4년을 하루같이 눈물로 평위를 모셔왔습니다. 허나 신도 이미 칠살을 넘어 배일 죽을지, 모세 죽을지 모를 문이오이다. 아아, 이런 국치를 당하고 어찌 눈

머리카락의 영양상태를 좋게 하려면 우선 식생활조절을 잘하여 5대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을 빠짐없이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이러한 영양소는 체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머리카락의 영양상태를 좋게 해준다.

머리카락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식료품으로는 일부 남새들, 콩류, 바다나물 같은 것들이 속한다.

일부 남새라고 할 때는 시금치, 숙곳, 푸초, 흥당무

우, 미나리 등이다. 이러한 남새는 검은 색소를 만들어 머리카락을 검게 만든다.

콩이나 풋콩은 머리카락에

## 머리카락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식료품들

란성과 윤기, 촉촉함을 더해 주며 끝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막는다. 콩음식 가운데서도 콩을 푹 삶아서 만든 띄운콩이 아주 좋다. 띄운콩은 콩의 단백질을

에 폐지된적이 있었으며 14세기 중엽에 두차례 개편이 있었다.

집현전에는 대학사, 학사 등의 벼슬이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초기의 집현전은 고려말기의 벼슬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 집현전

1420년에 세종은 집현전을 크게 확장하여 처음에는 8명의 봉건관리학자들을 10명을 넣어 전문적으로 유교경전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저작 또는 편찬하여 봉건유교사상을 선전하며 봉건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그 후 정원은 20명으로 늘어

나갔다. 15세기 전반기에는 당시의 봉건관리들 가운데서 이름있는 학자들인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최항, 박맹년, 리개, 강항 등 학자들이 망라되었다.

이 집단을 중심으로 1443년 12월(양력 1444년 1월)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훈민정음》, 《동국정운》, 《석보상절》, 《고려사》, 《고려사절요》, 《8도지리지》, 《동사직설》, 《의방유취》 등 책들이 편찬 출판되었다.

이밖에도 집현전의 학자들은 여러가지 천문관측기구를 만드는 사업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본사기자

## 옛이야기로 본 습합과 성부

### 귀머거리 제 마음에 있는 소리한다

귀머거리는 남의 말을 듣지 못하므로 그저 제가 생각하고있는 말만을 한다는 뜻으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만 함》을 비겨 이르는 말.

옛날에 온 집안사람이 똥망 가는귀를 먹은 집이 있었다. 하루는 방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있는데 나무장사군이 《나무사구러! 나무사구러!》 하며 지다가고있었다. 경감이 그걸 듣고 《이 늙은이 어찌하고 또 부역을 나오라는거요?》 하고 화를 벌컥 내자 마누라가 《점잖지 못하게 방에 돌 좀 들어갔기로서니 그렇게 화낼건

뮈요?》 하고 종알거렸다. 그러자 아들이 《저요 새 술 안 먹어요?》 하고 시치미를 떼니까 머리는 《어제 풍족 사온건 어린애 먹이려고 사온거지 저 먹자고 사온줄 아세요?》 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데 계집종이 뽕사 쥘린지 《아침에 뽕사 먹고 남은 돈 한푼도 안 빼먹었어요.》 하며 도리질 하였고 머슴너석은 《이놈

의 집은 아무것도 아닌걸 가지고 나가라 말라 해!》 하고는 밖으로 뽕소치러들 나갔다. 매마침 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하도 기가 막혀 저들한테 밤 좀 달라고 했다가는 며칠이 걸릴지 몰라다가 만나 죽을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말도 걸어보지 않고 가버렸다고 한다.

본사기자

상강이라는 말은 찻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인데 이 절기를 계기로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해지고 추위가 시작된다.

가을의 마지막절기인 상강시기는 온 한해 땀흘려 가꾼 낱알을 허실함이 없이 거두어들이는 데서 중요하고도 바쁜 계절이다.

상강을 전후로 하여 가을걷이를 마무리짓고 겨울용김장배추를 묶어주는 일을 진행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이 시기에 수확한 작물들로 만들어먹은 대표적인 음식의 하나는 콩음식이였다.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단백질을 비롯하여 영양성

분이 풍부히 들어있는 콩으로 메주장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먹곤 하였는데 추위를 앞둔 이 계절에 햇풍으로 비지, 콩국, 콩지짐과

고 만든 추어탕도 이 시기에 자주 해먹곤 하였는데 그것은 봄철 미꾸라지가 가을을 밟아 미꾸라지가 살도 많고 영양가가 더 높았기때문이라고 한다.

상강시 어린이들속에서는 습박곡질, 망가지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민속놀이도 활발히 진행되고 하였다.

올해의 상강은 10월 24일이다.

본사기자

## 지명과 그 유래

### 어사동

황해북도 은파군 기산리에는 어사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인물포교령리한 녀인이 주막집을 차려놓고 살았다. 어느날 주막집에 손님 여럿이 들이닥쳤는데 녀인은 그들이 보통나그네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손님들의 행동거지를 주의깊게 살펴보면중 우연히 그들의 우두머리인듯 한 한 사나이와 눈길이 마주치였다.

호방하고 튼튼한 사나이의 체모에 대변에 마음이 끌린 녀인은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싶은 호기심이 부쩍 동하였고 녀인은 본 남자 역시 그 녀자의 자태에 마음이 설레었다. 이윽고 저녁밥이 들어오자 사나이는 상을 마주하고앉았다. 그런데 밥부정을 여니 우백미로 지은 밥우에는 뉘 새알이 가지런히 놓여있는것이였다. 식사가 끝난 후 자리에 누워서도 이러저리 생각을 굴리던 그는 문득 그 뜻이 안겨와 벌떡 일어나 무릎을 탁 쳤다.

《물고기는 《어》요, 냇은 《사》이니 어사, 암행어사라는 뜻이로군.》

며칠후 자기 일을 마치고 한성으로 돌아가던 암행어사는 녀인과 반갑게 만났다. 그후 돌아가서도 그 녀인과의 정을 잊지 못하던 그는 몇해만에 자기결혼도 메려갔다고 한다. 이때부터 암행어사가 들려주 주막집녀인말이 가지런히 놓여있는것이였다. 식사가 끝난 후 자리에 누워서도 이러저리 생각을 굴리던 그는 문득 그 뜻이 안겨와 벌떡 일어나 무릎을 탁 쳤다.

본사기자

## 유망어

### 어른의 《징표》

어느날 집에 손님이 와서 주인집 녀인은 새대주와 손님에게 큰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에게는 작은 밥상을 따로 차려주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어머니에게 자기도 어른들과 같이 앉았다고 졸라댔다.

《야야, 그러면 못한다. 너도 앞으로 수염이 날 때면 어른들과 같이 앉아 먹을 수 있어.》

아들은 할수없이 작은 밥상에 가앉았다. 이때 맛있는 냄새를 맡은 고양이가 밥상밑으로 다가와 앞발을 밥상우에 난닥 울려댔다. 그러자 아들은 고양이를 밀쳐버리며 불분은 소리로 말했다.

《넌 수염이 났으니 이 상에 오지 말고 어른들이 앉은 상에나 가라.》